

# 清代 主要城市의 滿城形制에 관한 研究

韓東洙

(北京 清華대학 建築學院 博士과정)

## 1. 序 論

일반적으로 城市의 公·私建築 공간과 자유 공간에 대한 분포와 배치상황을 우리는 공간구조 혹은 내부결구라고 한다<sup>1)</sup>. 이러한 구조는 일차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반영하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왕조와 사회의 변천, 성시계획 이론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 역시 일정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성시의 배치는 다양한 측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응되고 부단히 변화하게 마련이며, 우리는 이것을 일러 특정한 역사의 시간과 공간 하에서의 생산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우리가 중국의 전통적인 성시의 구조를 분석하게 될 때 성곽의 형상은 물론, 관련된 시설, 주요한 官方機構의 위치 및 성시의 동선 등과 같은 요소에 관하여 주의를 해야만 비로소 전면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인 중국의 고대 성시는 방형으로써 사방에 하나씩 4개의 문을 설치했고 도로는 이러한 성문 간의

연결을 골간으로 삼는다(그림1). 그리고 성시의 주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은 城郭을 비롯한 城門, 衙門, 兵營, 貢院, 鍾鼓樓, 孔子廟, 城隍廟등과 같은 官方의 건축물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방식은 성시공간의 배치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성시의 성질과 기능 또한 성시의 공간구조에 명확히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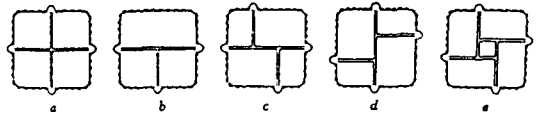


그림 1. 성문과 간선도로와의 관계

청대는 滿洲族이 지배계층을 이룬 왕조로써 漢族 이외의 이민족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나라의 판도가 가장 넓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만주족은 변방의 소수민족에 불과했고 한족 보다 낙후된 문화를 소유하였던 까닭에 명대의 문화와 각종 제도들이 대부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건축적인 풍격에서도 그대로 나

1) 沙學浚編, 《城市與似城聚落》, 正中書局(臺北), 1974, p.103.

타났으며 단지 명대보다 엄격하고 규범화된 체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다<sup>2)</sup>. 청대의 성시 역시 전 시대의 성시와 마찬가지로 통치성과 상업성을 주축으로 삼아 발전되었다. 반면, 청대에는 지배계층이었던 만주족의 특수한 통치방식 하에서 각지의 주요 성시에는 滿城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구역이 설치됨으로써 前時代와는 상이한 성시의 풍경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청대의 성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색으로 규정되는 만성의 특성과 그 形制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滿族의 形成

만족<sup>3)</sup>은 만주족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민족에 대한 명칭이다. 이같은 명칭은 17세기 30년대에 처음으로 출현했지만 그들의 옛 조상은 周秦시대의 肅慎이며, 그 후예가 변화되어 온 것이다. 한대에는 挹婁,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勿吉, 수당시대에는 黑水靺鞨, 송·요·금·원대에는 女眞이라고 각기 불리웠다. 명대에 들어서면서 여진은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쳐 15세기 중엽이 되자 점차 3개의 부족을 형성해 갔다. 이것이 바로 建州女眞, 海西女眞, 野人女眞이고 이들은 만족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후 여진사회의 생산력 발전, 내부적인 투쟁 및 명대 초기의 귀순정책등은 여진인들의 移住를 촉발시켰으며, 명대 正統年間(1436-1449년)에는 渾河 유역 일대에 정주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撫順에서 압록강변에 이르는 중국 동북부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sup>4)</sup>. 努爾哈赤은 萬曆11年(1583년) 군사를 일으켜 건주여진을 핵심으로 각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새로운 만족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그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몽골문자에 여진언어를 합쳐 滿文을 창제하는 한편 이러한 기초위에서 만력44년(1616년) 후금이라고 하는 노예제국가를 건국하고 天命이라는 연호를 내걸었다. 努爾哈赤의 뒤를 이은 皇太極은 天聰9年 10月 13日(1635년 11월 22일)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滿洲, 哈達, 烏喇, 葉赫, 輝發등의 명칭이 있었다. 또한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諸申이라고 칭한다. 제신이라는 호칭은 席北超墨爾根의 후예로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무관하다. 우리나라가 만주라고 建號한 것은 실로 오래 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왔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만주의 원래명칭을 부르며, 이전을 따라서 경망되게 불러서는 안된다.”<sup>5)</sup>라고 하며 정식으로 부족의 명칭을 만족이라고 정하여 만족의 첫번째 황제가 되는 한편 다음해 나라의 명칭을 후금에서 大清이라고 고쳤다. 이처럼 본래 여진인인 황태극이 여진과 무관하다고 강경하게 말하며 만주의 원래 명칭을 회복하고 여진의 칭호를 중지시킨 것은 다음해 후금을 대청이라고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으로 자신은 역사상의 여진인이 건립한 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3. 滿城의 分布와 機能

청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본래 중국북방의

2) 청대의 건축수준이 명대보다 퇴보했으나 발전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학계의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로써 그것은 어떠한 관점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청대의 건축수준은 발전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현재 중국내 만족의 인구는 대략 700만정도로써 요녕, 길림, 흑룡강, 하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신민에는 만주족자치현이 있다.

4) 張碧波·董國堯 主編, 《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 黑龍江出版社(哈爾濱), p.701, 1993

5) “我國原有滿洲·哈達·烏喇·葉赫·輝發等名,向者無知之人往往稱爲諸申.夫諸申之號乃席北超墨爾根之裔,實與我國無涉.我國建號滿洲,統緒綿遠,相傳易世.自今以後一切人等之稱我國滿洲原名,不得仍前妄稱.” 《清太宗實錄》卷25

유목수렵민족인 여진족이 건립한 왕조로서 努爾哈赤은 여진의 각 부족을 정복하면서 천제적인 조직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체사회의 인원을 동원시켰다. 당시 이러한 역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八旗制度<sup>6)</sup>이다. 그것은 군사, 정치, 생산활동이 하나로 합쳐진 특수한 조직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팔기제도는 “以旗統人,即以旗統兵”으로 努爾哈赤은 자신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조직에 편입시켰으며 일단 팔기에 편입된 사람은 “出則爲兵,入則爲民”, “出則戰,入則務農”의 원칙을 따라야만 했다<sup>7)</sup>. 그후, 만족이 중원지역으로 진출하여 전 중국의 판도를 지배하게 되면서 통치자들은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의 만주귀족은 군대에 의존하여 다수민족을 통제하는 통치방식을 채용하였고 팔기제도는 만성을 형성하게 된 골간이 되었다. 그리고 滿洲八旗軍兵과 그 가족이 장기간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만성은 점차 만족의 주거거점이자 군사적인 핵심으로 변해갔다.

### 3-1. 滿城의 分布

만성은 각지에 주둔하는 滿洲八旗官兵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다수의 중요한 지방의 통치중심성시나 혹은 그 부근의 지역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축조된 성곽<sup>8)</sup>으로써 기존의 성곽과 대비하여 新城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실상 이러한 만성은 하나의 거대한 병영이었기 때문

에 滿營이라고도 부른다<sup>9)</sup>. 기본적으로 만성은 대부분 하나의 완전한 성곽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성곽을 쌓지 않고 경계가 되는 담장만이 있는 만성도 있었다.

《欽定八旗通志》의 기록에 의하면 청대의 八旗駐防點은 90여곳이고 그 가운데 八旗滿洲駐防의 지방은 81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한 성시로는 兩京(수도인 北京과 부도인 盛京)을 포함하여 북방의 주요 부성, 關口등의 변방요새, 남방의 직할성시와 규모가 큰 성시들이다. 그 가운데 府治 소재지이면서 일정 규모의 만성이 설치된 성시는 省治 소재지 8개를 합쳐 모두 17개에 달했으며 省治 소재지 성시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省治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만성은 대부분 順治年間에서 乾隆年間에 세워진 것으로 절대 다수가 康熙帝이전에 지어졌다.(그림 2참조)

이들 17개 성시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 만성은 장강이북의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특히 도성인 北京 주변의 直隸省과 부도인 盛京의 주변에 비교적 많았다(그림2). 반면 長江 이남의 지역에는 강녕부, 항주부, 복주부등의 3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포상황은 청 조정이 국도인 북경을 중심으로 한 直隸省(즉, 국도의 주변지역으로써 河北省을 일컬음) 및 만족의 발상지로 신성시된 盛京地區를 상당히 중시하였음을 반영한다. 또한 전술한 바대로 통치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당시 八旗駐防을 설치하게 된 기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3-2. 滿城의 機能

원래 만성을 형성하게 된 주체세력인 팔기조직은 여진족과 그에 부속된 집단 모두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기구로써 牛泉(한어로는 佐領을

6) 팔기제도는 努爾哈赤이 여진인의 牛泉制를 기초로 하여 만든 것이다. 1601년에 처음으로 正黃旗, 正白旗, 正紅旗, 正藍旗의 4旗가 만들어졌고 1615년에 鑲黃旗, 鑲白旗, 鑲紅旗, 鑲藍旗의 나머지 4旗가 증설되었다. 하나의 旗를 구성하는 단위를 살펴보면 300명을 牛泉이라 하고, 5개의 牛泉이 모여 하나의 甲喇이 되며, 다시 5개의 甲喇가 모여 하나의 固山이 된다. 固山이 바로 旗이다. 따라서 하나의 旗에 소속된 사람은 모두 4500명이다.

7) 張碧波·董國堯 主編, 앞의 책, p.705

8) 董鑿泓 主編, 《中國城市發展史》, 同濟大學出版部(上海), p.79, 1982

9) 孫文良 主編, 《滿族大辭典》, 遼寧大學出版社(瀋陽), p.794, 1990

根據資料：《欽定八旗通志》卷一百一十二至一百一十八 營建志  
 根據地圖：譚其驤，《中國歷史地圖集》第八冊 清時期，地圖出版社，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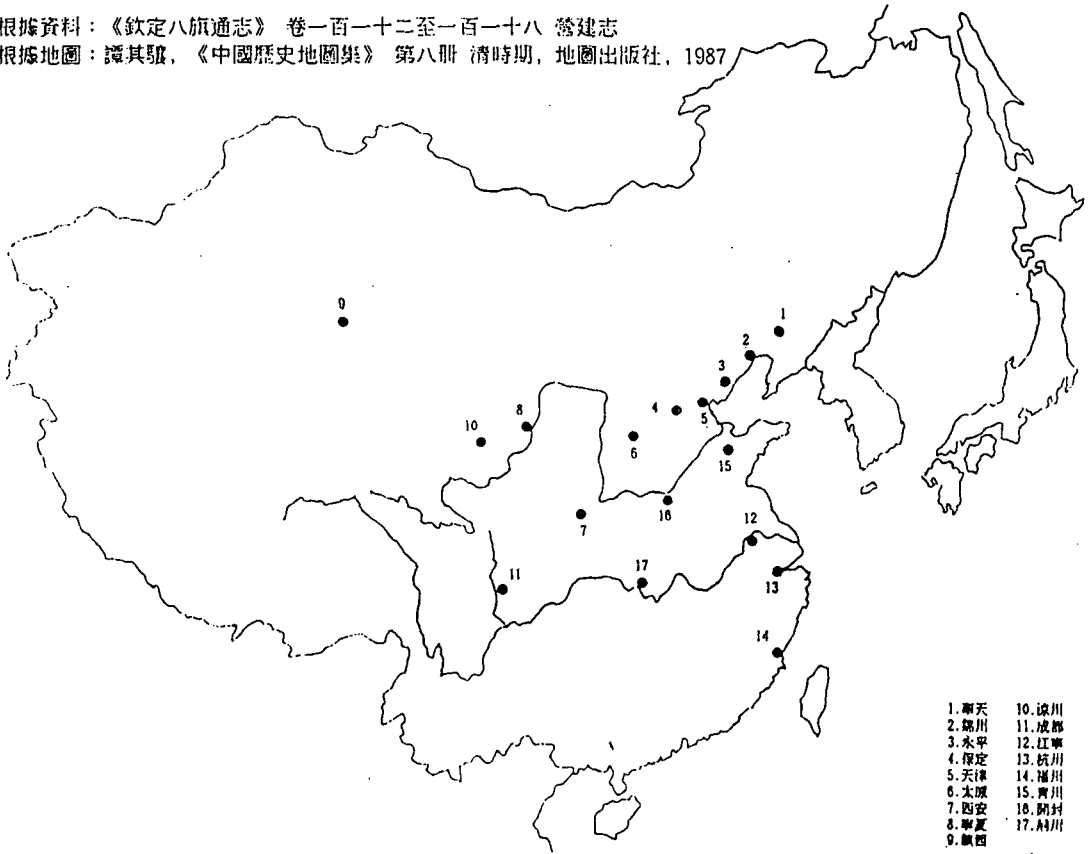


그림 2. 滿城이 설치된 府城의 분포도

가리킴)을 기본단위로 하며 5개의 우록이 하나의 甲喇(한어로는 參領을 가리킴)을 조직하며 5개의 갑라가 다시 하나의 旗를 이룬다. 팔기조직은 평상시에는 생산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전쟁에 참여하여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청이 中原地域으로 진출하여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후, 八旗는 더이상 생산에 종사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과 양식에 의존하여 그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단지 병역의 의무만을 유지하면

되었다<sup>10)</sup>. 결국, 이 조직은 점차로 생산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단지 군사적인 색채만을 유지했다.

한편, 청대의 통치계층은 滿人과 피통치자인 漢人 사이의 인구비례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수렵과 유목에 종사하는 변방의 소수민족이었으므로 민족의 문화 역시

10) 李旭, 〈論八旗制度〉, 《清史論文選集》 第1輯, p.241-256, 1979

한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청조는 이러한 열세의 통치기반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하며 효율적인 한족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八旗人을 중요한 성시와 전략적인 거점에 집중적으로 거주시켰다. 뿐만 아니라 팔기인과 한족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실례로 順治5年(1648년) 황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된다.

“戶部등의 아문에 명한다. 경성(즉 북경)의 한족 관료와 일반 백성들이 만족과 함께 거주하여 최근에 다툼이 일고 있다…이것은 (두 민족이) 서로 섞여 거주하는 까닭이다. 팔기에 보충되는 한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한족 관료와 상인, 일반 백성들은 南城(즉 북경의 외성)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명한다.”<sup>11)</sup>

그 결과 북경성의 내성은 만주인의 천국이 되고 한인들은 외성으로 밀려나 북경의 내성은 자연스럽게 만성을 이루었다. 이같은 정책은 다시 말해서 고도로 발달된 식민지 통치정책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만성의 형성은 위에 언급한 북경성 內城의 滿城化 과정에서 처럼 대부분 강압적인 토지수용과 주민이주 정책에 의하여 추진되어졌으나 민간의 재산권을 상당히 중시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가지고 만성을 만든 사례도 보인다. 예를들어 건륭 8년 영하부의 만성을 이건설 때의 檔案資料는 그러한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영하부가 만성을 이건설하려는 권역은 백성

들의 농토를 점유하게 되므로 먼저 황제의 명을 따라 시가에 의거하여 값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매입하도록 하라…새로 짓는 만성과 벽돌과 기와를 굽는 요장의 권역이 백성의 토지를 점유하니…상중하의 3등급에 따라 값을 지급하라…”<sup>13)</sup>

우리는 토지의 매입을 통해서까지 특정한 지역에 만성을 설치하고자 집착했던 청대조정 의 만성에 대한 정치적 의도와 만성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알 수 있다.

청 조정은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성의 축성을 위한 위치선정과 그 경영에 대단히 신중을 기했다. 예를들어 甘肅省 寧夏府의 만성을 이건설할 때 “…명을 받들어 만성의 이건설함에 있어 만년의 공고함을 이루도록 한다…”<sup>14)</sup>라는 檔案記錄이나 天津府에 만성을 설치할 때 “…병부우시랑 분곡립등은 친히 현장에 가서 지형을 답사하고 고찰하였다…”<sup>15)</sup> 라고 하는 지방지의 기록등은 모두 당시 청 조정의 만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지방지에 보이는 만성과 관련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만성의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한 요소들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첫째, 명대에 설치되었던 주요 통치기구의 지역 및 고급관료들의 거주지역

둘째, 군사적, 지리적으로 한인을 통제하기에 유리한 지역

셋째, 성시 풍수의 측면에서 볼 때 유력한

11) “諭戶部等衙門京城漢官漢民原與滿洲共處,近聞爭端日起…此實參居雜處之所致也…除八旗投充漢人不令遷移外,凡漢官及商民人等,盡徙南城居住.” 王先謙, 《東華全錄》 卷11, 光緒丁亥 欽文書局重刊本, 三上至下

12) 이같은 실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일합방 이후 조선반도에 설치했던 일본인 집단거류지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13) “寧夏移建滿城圈,佔民人田地,前經奏明請照時價給與價值,令其另行置買等…新建滿城并燒造磚瓦窯場圈,佔民地…按照上中下參等料則給價…”, 《明清檔案》 乾隆8年 11月 6日,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重刊本

14) “奉請移建滿城,以垂萬年鞏固事…”, 《明清檔案》, 乾隆8年 11月 6日,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重印本

15) “兵部右侍郎莽鵠立等,親往該處踏勘地形丈量…”, 《欽定八旗通志》 卷117 營建志 6,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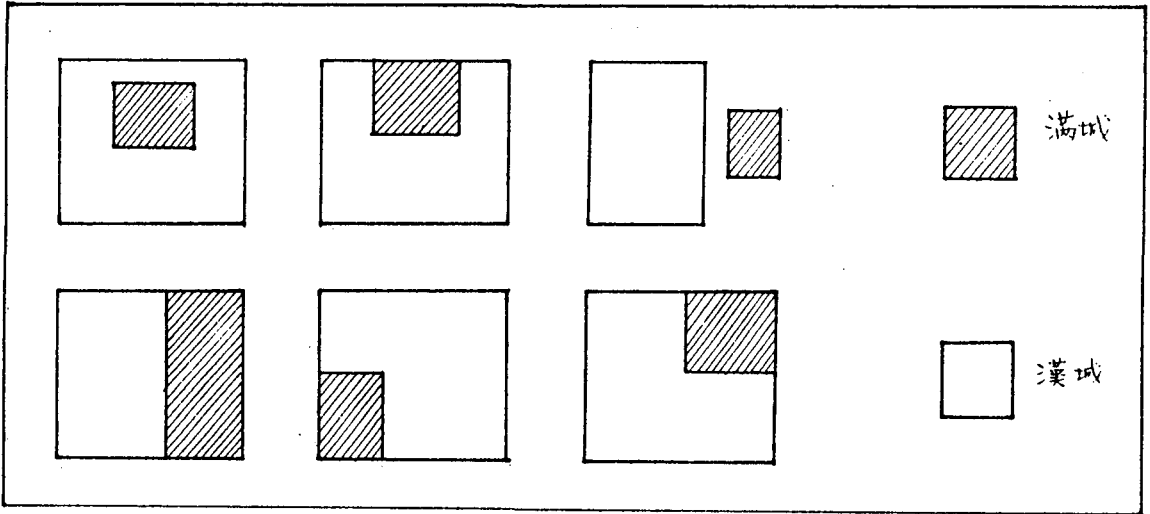


그림 3. 기존의 성곽(漢城)과 滿城의 관계도

길지

청대의 통치자들은 우선 명대의 존엄성을 떨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만성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전 시대의 주요한 관방기구가 있었던 지역, 예를들면 황궁, 관서등의 소재지였다. “국조가 안정되어 성치를 설치함에 있어 황성을 폐하여 駐防城(즉 만성)으로 삼으니… 강산이 웅위하고 지역이 넓고 산물이 많아 성곽의 동쪽에 하나의 커다란 도회를 설치하였다.”<sup>16)</sup> 혹은 “명주부의 터를 개축하여 팔기관군이 거주하도록 하였다.”<sup>17)</sup>라고 하는 기록

등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정권핵심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국 역사상 자주 보이는 실례로써 정복민족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명대 통치핵심에 대한 폐쇄와 그 권위의 말살은 새로운 황조가 진정으로 통치권력을 장악했음을 상징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통치민족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편, 《成都通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만성은 일명 내성이라고 하는데…그 형세를 보면 지네의 형상이다. 將軍帥府는 지네의 머리가 되고, 북문에 직접 도달하는 큰 길은 지네의 몸이 되며, 좌우로 각기 늘어선 衞衛(골목길)은 지네의 다리와도 같다…”<sup>18)</sup>

16) “國朝定鼎,設省治,廢皇城爲駐防城…江山雄偉,地大物博,設東南一大都會也”, 《上江兩縣志》. 卷5 城廂, p.5, 清 同治13年刊本

17) “…明秦府基改築,以居八旗官軍…”, 《西安府志》

卷9 建置上, p.2, 清乾隆 44年刊本

이것은 만인들이 만성구역을 설정한 뒤, 자신들의 주된 통치기구를 배치함에 있어서 한인들의 전통적인 풍수관념에 유념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인들의 사고속에 보편화되어 있던 풍수관념 역으로 이용하여 대중의 심리적 정서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4. 滿城의 形制

만주족의 거주형태는 본래 群體居住와 個別居住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部落村莊과 個戶院落居舍를 포괄한다. 17세기 30년대에 만주족 공동체가 형성될 당시 모든 구성원들은 八旗制度에 편입되었으며 이러한 제도하에서 그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旗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팔기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의 여진시대에는 대부분이 혈연의 성씨관계가 위주로 된 씨족부락 형태의 집단거주를 했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거지는 당연히 씨족부락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졌고 古村屯 즉, 古城堡는 바로 하나의 완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sup>18)</sup>. 그러나 努爾哈赤가 군민일체의 팔기제를 건립한 뒤 원래의 씨족과 부락개념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씨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옛 풍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이들이 팔기에 편입이 되고 난 뒤부터는 자연관계 위주의 鄉이나 村屯이 거주단위가 되었으며 하나의 촌락은 대부분 하나의 旗 밑에 귀속되었다. 그 결과 청대의 만주족의 취락구역은 대부분 이같은 유형을 보였고 촌락의 이름도 대부분 성씨, 지위와 명망, 旗籍등과 관계가 있었다<sup>20)</sup>. 예를들

면 修家峪, 上夾河, 金家窩鋪, 碾子溝, 白旗堡, 藍旗營등은 것들이 모두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만족의 거주 습관을 살펴보면 “서쪽을 귀하게 여기고, 물에 가까운 곳이 길지이며, 산에 의지하여야 부유해진단다”고 여겨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먼저 西廂房을 짓고 난 다음 東廂房을 지었다. 正房 역시 西屋이 크고 이를 大屋이라고 불렀다. 대옥의 안에 있는 西坑은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신성하고 정결한 장소이다. 산에 의지하고 물에 가까이 하는 것은 본래 인간거주의 이상적인 장소이다. 만족의 조상들은 물을 공경하고 산에 제사를 지내는 古風이 있었으므로 물에 가까운 곳이 길하고 산에 근접하는 것이 귀하다는 민족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요, 금시대 이후, 여진인들은 지상 위에 거실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종종 산의 양지바른 경사면을 택하여 집을 지었다. 그 결과 서북풍은 산이 막아 주었으나 동북풍에는 오히려 그대로 노출되면서 東廂房은 西廂房에 비하여 비교적 추울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만족은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따듯한 서옥에 거주시키고 제사도 서옥에서 거행하였다. 이같은 풍속이 오래 이어져 내려오면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이며 빛과 열의 원천인 동방을 숭상하던 요, 금시대 이전의 사고방식은 서쪽을 귀한 곳으로 여기는 풍속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sup>21)</sup>. 이러한 사상은 만성내의 주요 건물배치나 개별건물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우선, 만성을 구성하는 핵심이었던 팔기의 거주지역분배를 살펴보면 전국의 어느 만성을 막론하고 모두 음양오행의 五行相勝說에 의하여 정해진 수도 북경의 팔기방위를 따랐다. 그러므로 正·鑲黃旗는 북쪽에 위치시켜 土勝水의 의미를 취했고, 正·鑲白旗는 동쪽에 위치

18) “滿城一名內城…以形勢觀之,有如蜈蚣形狀:將軍帥府,據蜈蚣之頭,大街一條,直達北門,如蜈蚣之身,各衙衛左右排比,如蜈蚣之足…”, 《成都通覽》 渡城, p.6-7, 清 宣統元年刊本

19) 王宏剛, 富有光 編, 《滿族風俗》志, 中央民族學院出版社(北京), p.62-63. 1991.

20) 張碧波, 董國堯 主編, 앞의 책, p.719

21) 王宏剛, 富有光 編, 앞의 책, p.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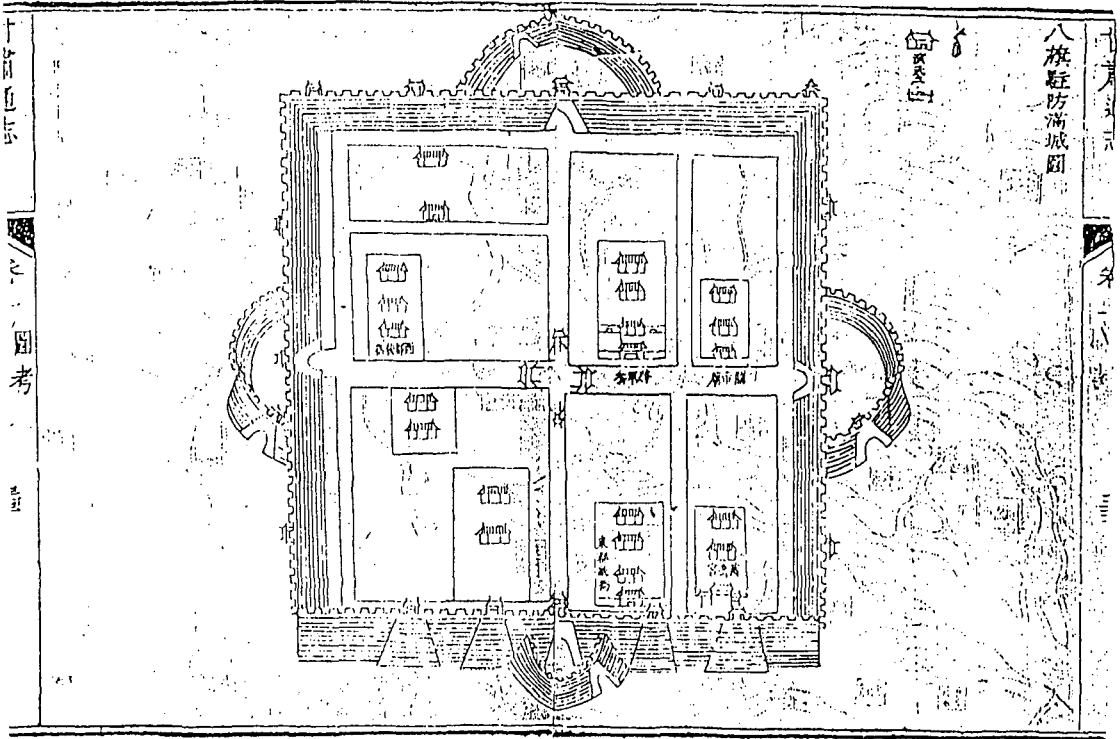


그림 4. 전형적인 滿城의 城市구조 (근거자료 : 《甘肅通志》卷1 圖考, 清乾隆元年刊本, P.94-95)

시켜 金勝木의 의미를 취했으며, 正·鑲紅旗는 서쪽에 위치시켜 火勝金의 의미를 취했다. 또한 正·鑲藍旗는 水勝火의 의미를 취했다<sup>22)</sup>.

다음으로 성시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城制는 기본적으로 만성과 漢城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새로이 축조된 만성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성곽은 방형의 형태를 취했으며 외부에는 해자를 파고 사방에 성문을 각기 하나씩 설치하는 한편 성문과 성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성시내부의 축이 되는 등

기존의 한성을 그대로 답습했다(그림4). 반면 일종의 병영으로써 만성이 가지는 성시의 특성 때문에 방어와 군사시설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하나의 실례로서 감숙성의 涼州府에 설치된 만성의 성제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성의 주변둘레는 1440장인데 7리 2푼으로 계산되며, 높이는 2장 4척, 외부는 전돌로 싸고 내부는 향토흙으로 되어 있다. 성문은 4개, 정성루와 용성루가 있으며 각루는 각 모서리에 하나씩 4개이다. 포루가 8개 있고 정성문에는

22) 孫文良 主編, 앞의 책, p.12.



은대가 4개 있으며, 각대 4개, 적대 24개이다<sup>23)</sup>

만성의 규모를 살펴보면 둘레가 10000尺 내외인 것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규모는 청대 부성의 평균치<sup>24)</sup>에는 못미치지만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

만성은 정치와 상업을 위주로 성시가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는 병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성내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병영과 유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내의 주요시설로는 아서, 영방, 화약창고등의 군사기구 및 시설이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팔기군병의 군사훈련을 위한 敎場도 주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비교적 큰 공지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성곽의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敎場의 부속시설, 즉 연무청이나 연무방도 敎場과 더불어 성곽의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안전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화약고는 만성의 내부에 배치되었다. 성내의 중심건축은 당연히 장군이 거주하는 아문이나 아서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주변에 배치된 영방이었다. 대부분의 만성은 우선 이같은 중심 건축물을 완성하고 나서 영방 및 기타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나 성시 전체로 본다면 만성의 규모는 기존의 성에 비하여 비교적 작았으며 만성의 설치로 인한 한인의 만인에 대한 반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만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한인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駐防八旗인은 기존의 성곽 내외부의 한 모서리를 선택하여 경계의 성벽을 쌓거나 어떤 특정한 지역을 분할하여 독립적인 거주지점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성시 외부에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滿城과 漢城<sup>25)</sup>의 관계는 한족들에 의하여 만인들을 포위되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 성시 전체를 관찰하는데도 유리하도록 설정되었다(그림3).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은 병영의 성격에서 벗어나 만족의 집단취락거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성도 이러한 성시의 성격변화와 더불어 성안에는 팔기병의 권속들을 위해 그들이 거주하는 집들과 교육을 위한 학사, 관학등의 학교가 설치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종교활동을 위하여 각종 사원과 묘우도 건립되었다. 예를들어 關帝廟, 觀音閣, 萬壽宮등은 거의 대부분의 만성에서 누락될 수 없는 필수적인 건물유형의 하나였다. 이것은 만족의 숭배사상과 신앙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淸朝가 中原의 정권을 장악한 이후, 八旗는 비록 생산기능을 더이상 담당하지 않았지만 만성 안에는 여전히 많은 장인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팔기가 필요한 무기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종사하였다. 그후 만성 안에서 활동하는 만인들은 청 조정의 보호정책과 특권을 이용하여 점차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만성 안에는 전당포, 석탄가게, 포목점등의 상업성의 건축물까지도 들어서게 되었다.

## 5.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만성은 청대 성시의 특징을 규정짓는 독특한 면으로써 팔기제도의 기초위에서 발전되었다. 초기에는 군사적인 측면의 병영이라는 단일의 기능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행

23) 《欽定八旗通志》卷117 營建志6, p.23

24) 청대 府城의 평균둘레는 12712척 정도가 된다.

25) 《大清一統志》를 비롯한 각 지역 지방지의 기록에서 漢城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지만 漢人이 거주하는 성곽이라는 의미로서 滿城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정, 집단거주지의 성격을 첨가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시의 보편적 특성인 만족의 문화중심지이자 상업성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팔기라고 하는 강력한 조직체계는 청초가 멸망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리고 만성의 분포지역은 그 설치목적인 한족의 효율적인 통치와 자신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듯이 일반적인 군사요충지외에도 주요 성시, 특히 府城의 경우 국도인 북경과 부도였던 성경의 일대에 집중되었다.

만성은 기본적으로 군사병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주족의 주거 및 종교신앙의 습관을 일정한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었으며 성곽의 제도는 漢城의 연속선상에서 계획되었다. 다만 군사적인 시설면에서 일반 성시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대라고 하는 강력한 봉건왕조를 유지시키는 골간이 되었던 만성의 기능도 청초의 운명과 더불어 점차 약화되었으며 청이 망하고 나서 만주족의 풍속과 습관, 언어 등은 급속한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향후 만성에 관한 사회, 경제사적인 측면에서의 보충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대 성시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문화의 주류 속에서 이민족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고 차별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1. 《明清檔案》
2. 《西安府志》
3. 《東華全錄》
4. 《成都通覽》
5. 《上江兩縣志》
6. 《清太宗實錄》

7. 《欽定八旗通志》
8. 沙學浚 編, 《城市與似城聚落》, 正中書局(臺北), 1974
9. 董鑒泓, 《中國城市發展史》, 同濟大學出版社(上海), 1982
10. 劉敦楨 主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北京), 1984
11. 孫文良 主編, 李治亭·劉萬泉 副主編, 《滿族大辭典》, 遼寧大學出版社(瀋陽), 1990
12. 王宏剛, 富育光 編, 《滿族風俗志》, 中央民族學院出版社(北京), 1991
13. 張碧波·董國堯 主編, 《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 黑龍江人民出版社(哈爾濱), 1993
14. 韓東洙, 《清代府城的城制與營建活動之研究》, 國立臺灣大學 碩士學位 論文, 1994

丑 1. 清代 主要城市의 滿城 城制表

省	府名	府治	城郭	城	城內外施設		位置	年代
					城內	城外		
盛京	奉天	承德	16200尺		內宮 邊濟倉 太平倉 新倉 官學 學房	南館 草 教場	府城內	1675
	綿州	綿	9100尺		衙門 衙署 倉廠	教場		1675
直隸	永平	盧龍	16215尺		衙署 營房			1695
	保定	青苑	23250尺		衙署 住房 廣營倉	教場 火藥庫		1649
	天津	天津	9000尺		衙署 官房 倉 堆子房 住房 堡臺 營房	演武臺 火藥房		1726
山西	太原	陽曲	8434尺		衙署 營房 官學舍	教場	府城內	1646
陝西	西安	長安	22280尺	5	衙署 營房 教場		府城內	1645
甘肅	寧夏	阜蘭	10800尺	4	衙署 馬甲房 步甲房 軍房 演武房	演武廳	府城外	1724
甘肅	鎮西		10800尺					
肅州	涼州	武威	12600尺		官廳 衙署 會府 關帝廟 砲臺 教場房 印房 官學		府城外	1737
四川	成都	成都	7200尺	4	衙署 馬房 官房		府城內	1718

省	府名	府治	城郭	城	城內外施設		位置	年代
					城內	城外		
	江蘇	江寧	34125尺		衙署 營房 箭亭 教場 火藥廠		府城內	1660
浙江	杭州	錢塘	12600尺	5	會議府 衙署 倉廠 廠房 火藥局 廟宇 學舍 營房	教場	府城內	1648
福建	福州	閩	11305尺		衙署 營房 火藥庫 社倉 學舍	教場	府城內	1680
山東	青州	益都	10494尺	8	衙門 街署 營房	教場 演武廳		1729
河南	開封	祥符	10800尺	4	衙署 營房 堆房 火藥局 火藥庫	教場	府城內	1719
湖北	荊州	江陵	12580尺		衙署 官房	教場	府城內	1683

根據資料: 《欽定八旗通志》卷112-118 營建志.